

“내년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 당정청회의... 일자리·SOC 사업 집중 관리분야 선정 철도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이 총리, 광주형일자리 타결 독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잦은 철도 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해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지역일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 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이어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해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 "화합 최우선"... 이재명 징계 일단 유보

이해찬 대표 "재판과정 지켜봐야"... 이 지사 백의중군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되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당헌에는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할 사유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 위법 혐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주내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1차 인적쇄신 이르면 내일... 나경원 원내대표 평가 주목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인적 쇄신 작업의 1차 결과물이 이르면 14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박계 지지를 받아 선출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평가를 받기 주목된다.

▲2016년 총선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 ▲대여 투쟁에 미온적인 인사 ▲존재감이 약한 영남 다선 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당내 화합을 해치는 인적 쇄신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인적 쇄신 결과물에 따라 비대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역 의원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다.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현실화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적 쇄신 내용에 따라 친박(진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직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12일 "이번 주말 전후로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발표하고,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적 쇄신 대상에 친박계가 많이 포함된다면 친박계 지지를 받는 나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고 있다. 그러나 조직특위는 원내대표 겸임 결과와 관계없이 인적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특위는 그동안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실태조사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에 대한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직특위는 인적 쇄신 원칙으로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시급”

평화당 최경환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에 촉구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은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 대표에게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추천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천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천해서 올해 안에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 문제인 대통령을 향해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데도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추천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조사위원 추

천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천해서 올해 안에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공기업·준정부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기준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1.8%로 정해졌다. 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평균의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의 인상률은 기준 상승률(1.8%)보다 1.5%포인트 높은 3.3%까지 가능한 반면 총인건비가 산업 평균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기준보다 1.0%포인트 낮은 0.8%가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 당헌에는 기소와 동시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 스스로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임대차 기간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인건비 상승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상승률은 1.8%로 하되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인건비 상승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상승률은 1.8%로 하되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인건비 상승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